

# 세계교회와 한반도 평화

정희수\*

## 들어가는 말

한반도의 평화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아들라이 스티븐슨(Adlai E. Stevenson)이 2차 대전 직후 한반도 현실을 예언한 것처럼 평화를 위한 헌신을 호소한다. “우리는 인내하여야 한다.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다.”(We must be patient—making peace is harder than making war.)<sup>1)</sup>

그는 법률가이면서 언론인이었고 유엔을 창립하는 일에 크게 역할을 한 분으로, 후에 유엔 대사로 일하면서 쿠바 미사일 대립 때 구소련과

---

\* 현 위스콘신 연회 감독,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이사장, 전 북일리노이연회 감독 (2004-2012), 강남대학교 종교철학 교수(1993-1997), 위스콘신대학교 철학박사

1) 시카고 외교구락부(Chicago Council of Foreign Relations)에서 1946년 3월 21일 한 기조강연.

대면하였던 정략가였고, 일리노이 주지사를 지냈으며, 대통령 후보로 두 번 도전하였지만 선거에서는 패배하였다.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현실 70년을 보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은 스티븐슨의 말처럼 아주 커다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일이면 오겠지”하고 평화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70년이 넘어도 현실화되지 않으니 한반도 평화의 현실은, 현실 초월의 기다림이고 가슴을 갑갑하게 하는 아픈 기도와 탄성이 된다.

세상에 혼자여야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함께 가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이며, 다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대화하고 남북(북남) 화해의 길을 기도하면서 모색하여야 한다. 오늘 나는 세계교회의 기도와 노력을 중심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노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나는 평화와 화해를 소망하면서 세계교회의 다양한 선교와 만남의 가교에 동참하고 함께 하였다. 중국 단둥 압록강 가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조국의 동포들을 생각하였고, 눈 덮이고 얼어붙은 두만강 가 러시아 변경에서 북한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였다. 2015년 처음 평양을 세계교회협의회 대표단으로 방문하여 대동강 가를 걸으면서 마주치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몽클한 순간이 있었다. 수차례 고향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개풍과 연안 땅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북한교회 지도자들을 애틀란타 대회에 초대하고 저들의 여행 허락을 위해서 워싱턴 국무성 관계자들과 만나기도 하고,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대회를 열면서 함께 한 수백 명의 코리안

아메리칸들과 지금 평화를 달라고 목이 터지게 외쳐 보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다짐하곤 하였다.

## 한반도 평화가 왜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되어야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선포와 설득력에 기인하여 평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요 14: 25-27).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를 향한 부르심을 듣고자 한다. 이는 예수의 위로와 배려의 약속 너머, 예수께서 제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와 사명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하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신앙고백의 중심에 평화를 위한 일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실천하라고 전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시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이 말씀은 평화의 기초를 다지고, 건설하고, 유지하라는 섬세한 당부이다.

평화 사역은 교회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선적인 길이고, 그 평화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치와 생활양식으로 실천하라 부르신다. 그 부르심은 세상의 불화와 갈등 속에서 일깨우시는 소중한 혁명적인 부르심이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평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정치인들과 군사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리가 평화란 군사력과 전쟁 기계와 고도의 방어 무기를 통해서만 ‘쟁취’되는 것이라고 오해해왔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부분을 전문인들이 논의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답론은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란 생각이 날로 더해간다.

예수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신 역설적인 지평에서 평화가 철저한 하늘의 가치인 것을 요구하셨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하시면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인자에게 한 것이라 동일시하신 것은 사랑의 본질과 평화가 일치하는 것이리라.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육화하시고 땅에 오셨다. 성육신(incarnation)은 성서적인 진리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구원의 소식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육화의 실천적인 임재로 오셨고, 그것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화해와 평화의 그림이다. 그 평화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우리들에게 미룰 수 없는 사명이고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령의 형태로 내어주신 ‘살롬’과 ‘이레네’(고대 그리스어 발음으로는 ‘에이레네’)의 평화가 되어야 한다.<sup>2)</sup> 교회가 평화 프로세스를 모든 일과 과정에서 실현하고 하나님의

---

2) Hee Soo Jung, *Reconciling Boldly*, Bible Study in EFK meeting, June 23, Geneva, Swiss.

정의가 온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라 꿈을 주시는 것이다. 복잡한 역사이해와 상처들이 많아서 우린 쉽게 한마음으로 평화를 말하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제자도로 삼게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 세계교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금 어디에 있는가?

2020년 세계교회협의회(WCC)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70일 기도 캠페인을 3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신학적인 작업과 기도 연대 운동은 바로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최근의 일이다. 이 캠페인은 지난 수년 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체의 캠페인과 함께 한반도 남과 북, 북미의 관계에서 일어난 대화와 해빙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 영향력 있는 평화 운동의 줄기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절단이 미국 주요 도시를 거쳐서 정전협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긴 여정을 계획하였을 때, 미국교회협의회와 연합감리교회를 대신하여 그 사절단을 영접하고 함께 미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의회와 행정부를 찾았던 기억은 최근 한반도의 문제를 거리에서 나눈 잊을 수 없는 기회였다. 이 운동의 열매로 세계교회협의회는 『평화의 빛: 한반도와 함께 연대를 이루는 교회들』(*The Light of peace: Churches in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ninsula*)을 출판하여 평화기도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을 향해 공헌하였다.<sup>3)</sup>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전 사무총장인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Olav Fykse Tveit) 목사는 “지금은 지난 70년 동안 평화 없이 살아온 한민족을 기억해야 할 시간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았고, 평화를 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평화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변화 시키시는 은혜에 대해 깊은 소망을 갖게 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연대를 보여주며, 우리 사이의 포용의 폭을 넓혀 준다.”라고 호소하면서 핵심적인 평화의 기도운동으로 초대하였다.<sup>4)</sup>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는 이렇게 기도운동을 바라보았다. “1945년 이래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과 1950년에 시작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지정학적 원죄가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상태는 우리를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자연에 어긋나게 하는 죄이며, 한국인의 풍성한 삶의 생태계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는 죄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 기도 캠페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평화의 열쇠이자 용서와 화해를 배양하는 평화의 호흡이며, 세계적인 에큐메니컬 연대를 활성화하는 평화의 샘이 되어, 하나님의

---

3) *The Light of Peace: Churches in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ninsula*, WCC, Geneva, 2020.

4) *The Light of Peace: Churches in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ninsula*, WCC, 2020, 68-71.

한반도 생태계 재창조를 향한 평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sup>5)</sup>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이후 분단된 한민족의 평화와 화해 및 통일을 위한 교회의 지지와 노력을 새롭게 하고 강화해 왔다. 매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에 초대되어 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연맹이 준비하는 이 기도문은 전통적으로 매년 8월 15일 또는 그 전 주일 예배에 사용된다.

2016년 제21차 세계감리교회협의회(World Methodist Council)가 휴스턴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One God, One Faith, One People, One Mission”이라는 주제로 세계 감리교인들이 모였다. 이 휴스턴 대회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와 협의를 논의하고 연합감리교회와 한국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평화와 화해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박종천 박사가 세계감리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평화의 가교로서 책임을 갖기도 했다.

연합감리교회는 세계선교부를 중심으로, 2018년 11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 애틀란타 대회를 개최하고 세계감리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함께 미국 정부와 교회들을 평화와 화해의 사역에 불러 세우는 예언적인 음성을 내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운동을 가속화하였다. 나는 세계선교부 이사장으로 대회장으로 섬기었고, 카터 센터와 에모리 대학 캠퍼스에서 대회를 초취하고, 오랜 동안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지미 카터 대통령과 짐 레이니 대사의 회고와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애틀란타 선언은 사흘간의 대회를 통하여 구성된 하나의 진전된 문건이다.

---

5) 상계서, 17-21.

“우리는 고백한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남과 북의 분단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신 원수를 종종 악마화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향해 희망을 품기보다는 의심했다. 우리는 환대보다는 적대감을 가졌다.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은혜와 화해를 위한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변혁의 용서를 간구한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념과 종교의 경계를 가로질러 모든 불의한 자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정의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로마서 1:18; 3:30-21). 올해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의 우상인 핵을 선택할 것인지를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70년 동안 남과 북은 적대적인 분단의 벽으로 나뉘어, 적대적 공생의 비극을 극복하지 못했다.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한 적대감 없이 존재할 수 없어 보였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권위주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당면한 위협으로 간주했고, 북한은, 미국의 잠재적 공격 가능성을 구실로, 전쟁 체제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민족의 포로 상태를 끝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분단 시대를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골로새서 2:15) 시킬 것이다.

“우리는 약속한다. 우리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평화’(에베소서 2:14)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행할 때가 왔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시간이다. 동시에, 지난 한 세기 동안 두드러진, 특별히 미국에 의해 보급되었던, 지정학적 세계 질서가 일부 지역에서 새 방향과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새로운 야망에 자극받은, 이러한 변화는 틀림없이 평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긴급한 순간은 하나님 변혁의 구원을 위한 기회다. 분단의 낡은 구조와 권력의 대체를 촉진하면 한반도 위에 꽃을 피울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sup>6)</sup>

카터 대통령의 기조 강연에서 그가 보여준 평화 사랑은 눈물겨운 모습이었다. 카터 센터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나는 그의 노력을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백악관에 있을 동안 평화협정을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4년 클린턴 행정부를 대신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이끌어냈고, 핵전쟁 위기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단계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는 한반도를 완전한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sup>7)</sup>

애틀란타 대회를 세계감리교회와 주최하면서 나는 2차례 워싱턴의 국무성 코리아 데스크를 찾아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지도자들을 초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여행규제를 풀고 전략적인 협력을 구하기

---

6) <애틀란타 선언문>에서.

7) 2018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의 주제 기조강연에서.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려하는 편지를 썼고, 국무성과 유엔 대사를 방문하고 제3의 라인을 통해서 노력했으나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여전히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단을 미국 교회가 영접할 수 있는 일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다.

세계개혁신교회연맹은 2017년 6월 27일에서 7월 7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총회를 진행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취지를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위임을 대회의 주 안건으로 채택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주제는 “Living God, Renew and Transform Us”였다. 세계 개혁신교회들이 모여서 세계의 정의와 변혁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감리교인으로서 깊은 감동을 경험하였다. 종교개혁 500주년 역사적인 길목에서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곳에서 두 시간 거리인 곳에 세계개혁신교회가 함께 모인 것이다. 나도 한반도를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Ecumenical Forum for Korea)에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여 같은 장소에 참여하고, 조선그리스도교연맹(Korean Christian Federation) 강명철 목사와 일행을 환대하게 되었다. 개혁신교회들의 대표들도 함께 참관하는 에큐메니컬 포럼은 지속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참여를 함께 고백하게 되었다.

실제 세계교회의 대표적인 협의기구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대부분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주요 선교적인 과제로 삼고 선언한 것은 주목해야 한다. 이는 서로 분단의 아픈 역사를 바라보고 코리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화해와 평화의 길을 만드시고 일하신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는 중요한 하나님나라 운동의 맥이며 고난 받은 이들과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고 세계교회가 믿은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성령의 강한 의도와 성취라고 보며, 바로 이런 시기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맞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2020년 워싱턴에서 노근리 희생자 추모예배와 장로교 총회를 겸한 선교대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초대를 시도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 속에 있음을 애석하게 여긴다. 미국교회협의회(NCC USA)와 함께 에큐메니컬 진영의 많은 교회들이 평화와 화해의 대화 촉진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다 넓은 공동체들의 참여는 여전히 교회와 선교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 세계교회의 평화담론은 예언적인 역사의식과 함께 간다

세계교회의 한반도 평화 담론은 무엇보다도 1984년 일본 도잔소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협의회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그 이전에는 한독교교회협의회가 통일과 평화의 협의를 1981년에 구체화하고자 하였지만 미완성의 논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인권과 민주화에 공헌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세계교회협의회와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기도와 교회 평화운동의 연계점 속에서 1985년 제34차 총회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선언”을 기초하고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선한 남북기독교협의회가 1986년 글리온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변환점과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

8) Ibid, Erich Weingartner, 125-128.

1988년 교회협을 중심으로 88년 선언을 기초하고 민족자존과 남북화해의 노력을 기초로 본격적인 남과 북, 북과 남의 교회적인 만남과 대화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바로 같은 해 11월 23-25일 제2차 글리온에서 남북기독교자협의회가 개최되고 통일 회년 선포와 남북 공동기도주일 등을 정례화하기 시작한 것이 평화를 향한 세계교회의 노력과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 남북의 교회들이 서로 방문하고 휴머니타리안적인 협력과 공생을 시도하고, 정부 주도 하에서 멈추었던 화해와 평화의 담론을 사회적으로 열어가는 일은 남북띠잇기 대회나 회년 기도운동 등 다양한 민간과 교회의 운동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우후죽순 격으로 다자간의 교류가 만들어낸 대중성은 교회가 터놓은 물꼬가 이제 다양한 사회기구 속에서 진행되도록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로의 소통과 협력을 재차 요청하게 되었지만 긍정적인 화해의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한반도를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Ecumenical Forum for Korea)은 2000년대 중반에 와서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다협력 체제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이끌어온 주요한 협의기구이다. 처음 EFK(Ecumenical Forum for Peace, reunific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거의 연례적인 만남과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주축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교회협의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유기체적인 기구로서 오늘까지 평화와 화해의 주도적인 세계교회 논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 포럼에 나는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여 참여하면서 미국교회들의 연대와 평화운동의 지평을 확산하는 일을 일상의 기도로 삼고 있다.

평화와 화해의 사역은 남과 북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 담보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교회들과 NGO 등을 망라하여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럼이 이루어온 성과를 중요하게 볼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금 다양한 교회들이 이 포럼의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와 민간의 평화운동에 적극적인 파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목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 여전히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기도와 꿈은 지속된다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과 남북한 정상 지도자들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이 전 세계에 희망찬 감동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어쩌면 한반도의 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 평화의 기초를 다지고 (peace-making), 평화를 건설하고, 영구적인 평화 유지 등을 위해서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일지도 모른다.

평화와 화해, 그리고 회복이 가능한지를 의문시하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북미 간의 만남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민문제와 정의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나는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소통하는 때에 다시 공개서신과 사신을 대통령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었다.

우선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평화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평화를 위해 간절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평화를 우리들 일상생활의 중심 가치로 삼게 만든다.

평화는 크고 작은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정신에 평화를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실제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과 평화롭게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낯선 사람들과 심지어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평화는 개인과 신앙 공동체의 영성 한가운데 중심의 중심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 다음은 우리 모두를 위해 평화의 기초 다지기를 위한 교육과 신학적인 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모든 시기와 문화에서, 자유사상가와 철학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 담론이 중심의 중심이라 여겼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이러한 개념을 일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평화 담론을 더해 가는 일이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현대의 담론은 서로 다른 타자를 어떻게 인정하고 다름을 넘어서서 돌봄과 공생의 길을 만들어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실험하고 있는 것 같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단체들 사이에 다리 놓는 일을 나는 일상에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나도 그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자 한다.

타종교와의 대화, 교회일치 운동에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하고, 불의에 항의하는 사람들과 다각적으로 동행하고자 노력해 본다. 또한, 일치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평화 활동을 지지하며 불의에 도전하는 편지를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내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평화의 비전을 확장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의 소명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하여 기도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 화해와 평화의 현실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산다.

평화는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는 건설하는 것이다. 평화는 유지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항상 비용이 든다.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는 값싼 것이 아니며, 다른 한편의 희생 위에 균립하지 않는다.

평화는 경멸, 두려움, 의심, 은밀함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이 땅에 세워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뜻보다 우선시하고, 모든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 이 세상 모든 의제를 미루어 놓으라고 요구하신다. 이것은 고귀한 사역으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요 14:27)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북미 기독교자회회는 1967년 미국과 캐나다에 교회, 신학생,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던 긴 여정을 기억하게 한다. 1988년 제22차 연례대회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면서 <분단 시대와 이산 가족>이란 주제로 적극적인 평화담론을 이야기하고, 89년부터 남과

북, 해외 기독교자들을 초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의 논의가 부재하였던 냉혹한 시기에 세계교회를 흔들며 깨우고 북한 종교지도자들을 대화의 마당으로 초대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안다.

최근 70년 남북 분단의 세월을 애도하면서 화해를 갈망하는 미주 한인크리스천의 성명서는 이런 평화의 담론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2020년은 지난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잔혹한 전쟁은 사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폐허와 상처를 남겼으며 수백만 가족을 생이별 시킨 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명서에 서명한 이들 중에도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停戰)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는 끝났지만, 미국과 남·북한은 종전을 선언하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한반도에는 긴장과 적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은 근대사 가운데 가장 긴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는 일백칠십만 미국 군인이 한국 땅에서 싸웠으며, 이중 삼만 이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또한 수많은 가족에게 상처로, 비극적이고 끝이 없는 남북의 분단으로,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겪고 있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사이의 적대 행위와 긴장으로 인해 잊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의 동의 없이는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미주 한인들은 공동체와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이 화해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sup>9)</sup>



## 남북이 서로 그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혁신이 필요하다

실제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하는 우리들은 냉전체제의 도식과 공포의 마케팅에서 벗어나도록 북남 남북의 우정을 진작시켜 가야 한다고 믿는다. 서해교전, 연평도 폭격, 천안함 사건, 남북연락사무소 폭발 등 지난 10여년의 한반도에서 일어난 갈등과 대결은 실제 끊임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결과물이다.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언론과 정부정책은 냉전 체제의 연속과 공포의 마케팅을 통해 불신과 차별적인 인식을 확산해 왔다는 것이다.

나는 휴전선을 두고 국경 너머에 가장 악한 테러리스트가 살고 있다는 대중 인식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흑백 논리와 반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는 역사적 오류를 더 공고히 하기 때문에 70년 이상의 대결의 기미를 거두지 못하고, 서로 간의 악순환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이겨야 한다는 신앙공식이 형제 사랑과 우정을 갖고 교류하게 되는 평화 인식을 멀게 하고 있다는 자기비판을 우리는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경 너머 가장 악한 테러리스트, 반인륜적인 정권 같은 공포의 마케팅에서 한 백성이라는 민족애와 한 식구요 친구라고 하는 우정의 마케팅을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

9) 북미주 그리스도인들의 선언문, 2020.

거기서 두 개의 나라로 공존하고 차별과 이질감을 해소하여 가는 그런 관계가 신학적인 인식 속에 들어와야 한다.

남과 북이 두 국가로 공존하면서 두 국가 식 협력을 위한 통 큰 대안을 통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우정의 관계 회복이 갈등과 대결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라고 믿는다.

남북 북남 공존과 대화,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 간 다양한 합의 과정을 통해서 강렬한 우정을 서로 확인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여 가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선교 인식 속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30여년 민중 저변에서 일어난 변화는 식민지 과거뿐 아니라 지난 역사 속의 진실과 화해하는 알찬 노력들을 통해 역사 인식에 강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노력은 치열하기까지 하고 여전히 그런 논쟁은 노동과 인권이라는 영역에서 많은 진보를 가져왔다. 이러한 논쟁과 실천 과정에서 “국가” 중심의 관점을 지양하고, 보편적 “인간” 관점으로 평화를 조율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보건, 식량, 기후와 환경 등이 접두사로 붙는 인간 존재와 안전은 국경과 세대를 넘어서는 평화의 담론과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 갈등의 틈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자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동맹과 혈맹으로 이웃 제국을 마주해야 하였다. 그 틈 속에서 지혜와 묘수로 살아남고 자존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사는 것은 실제 정치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변수가 되기도 한다. 제국주의 지배에 의존하면서 내부적인

갈등과 발전을 꾀한 것이 한반도의 역사였다. 그 상황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일은 다소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동맹의 관계로 규정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근대사 이후 탈식민주의와 한국전쟁, 그리고 평화 유지라는 선에서 남한은 미국과의 혈맹이라는 인식을 강화해 왔다. 미국의 희생적인 군사주의가 한반도의 현실 속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인식이 세속적인 민족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신화화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아직도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 속에 존속하고 있다. 반미와 반기지 운동은 80년대 고개를 들었지만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러고는 슬쩍 미국 의존도를 동맹의 관계로 규정하고, 그렇게 강화된 정치 역학은 중국과의 관계에 냉정한 선을 긋고 있다.

한국 그리스도인은 복음주의자적인 기반 속에서 철저히 친미 동맹을 신성한 관계로 여기고 있다. 어떤 예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공화당 지지 기반이 복음주의자들이라는 밑그림과 서로 잘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제국 견제와 지배 확장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어올 수록 하나의 묵시록적인 친미동맹 복음이 정치 세력화 되는 것을 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역적으로 접경을 이루고 있기에 더 많은 숙제를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 북남의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대결 지형도에 걸리면, 그 마법은 아마도 실망스럽게 오래 오래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합의를 가지고 갈등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교회 지형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가속화되는 현실

을 우리는 특이한 역사 변형의 과정으로 주목하게 된다. 물론 아편전쟁과 지하 분열의 아픔을 가진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교회 부흥을 미국과 서양 열강주의를 신봉하는 유사 그리스도 교회로 바라보고 경계하는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인구가 중국에서 거대화되면서,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방과 신자유주의 바람을 어느 누구도 쉽게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구화의 개방과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

## 왜 휴전 협정의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의 근원이 된다. 실제 한반도는 너무 오래 정전과 휴전이라는 전쟁의 연속선상에 머물러 있어 왔다. 분단의 현실이 주는 사회정치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 오래 파괴적인 단절을 공고히 하여왔다.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휴전 협정(Armistice Agreement)은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하나의 군사적인 협정이다. 여기서의 임시적인 군사적 협정으로 군사적 행동의 중단과 전쟁 포로의 후속조치가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 휴전협정은 부차적인 단계의 정치적인 협의로서 영구한 평화를 가져와 대체되어야 할 임시조치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으로 규정되는 단계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인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18년 11월 11일에 정전협정이 서약되고, 이듬해 1919년 6월 28일에 평화협정을 완성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명백하게 종식된 것을 규범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제네바 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치적인 협약으로 군사적인 휴전과 정전협정을 완전한 전쟁 종결로 협정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남과 북, 북과 미국의 대결 구도에서 대안적인 정치적 협정을 초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은 비극으로 지금까지 거의 7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을 주목하여야 한다.<sup>10)</sup>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협정(Peace Treaty)은 전쟁을 법적으로 공식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등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후원하는 공식적인 협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하고자 했던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은 바로 그런 협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선언되고 외교적인 관계가 바뀌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군사협정에서 정치적인 협의로 완성되어야 할 평화협정의 지체는 섭정과 군사 전작권의 문제까지 지연되게 하고, 남과 북, 북과 남의 자율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이 주요한 창구가 되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양육하고 우정과 상호존중의 관계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가교가 된다는 이해로, 미래적인 대안을 북과 남, 남과 북, 그리고 세계 여러

---

10) Patrick M. Norton, *End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Legal Issues*, 1997.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상생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적인 대결과 핵무기 경쟁으로 인한 반평화적인 현실을 반대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기초로 다양한 교류와 우정의 관계,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의 연대를 가져와 인권과 생명, 그리고 생태적인 평화의 양육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평화협정 제안은 1962년과 1974년 두 차례 북한이 제안하고 독려한 경우가 있고, 그 의도가 순수하고 진지한 것인가 묻는 정치적인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진전되지 못하였던 역사가 있다. 어쩌면 이런 사례가 있었기에 평화협정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반응이 멸망과 흡수의 대결적인 싸움판 속에서 정면으로 화제가 되지 못한 것으로 회고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의 핵보유와 동북아 전반의 안전 문제의 중심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진보하는 일이 화급한 것이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제 대화와 협정을 통해서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을 시도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해와 협력을 향한 통전적인 가능성으로 평화협정은 열린 문을 만들어 주고 평화의 씨앗을 구체적으로 뿌리게 하는 창구이다.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자주적인 두 개의 국가로서 권위를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실천하는 길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의 복음적인 선포가 바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대화와 협력의 상호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획기적인 기초를

확보하는 일로 가능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기도이고 책임으로 바라보며 평화협정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현실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 나은 평화를 이루어가고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공헌할 수 있는 세계평화의 기회가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긴급성과 당위성을 선교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믿는다.

### 한반도 평화의 성취, 그것은 믿음의 실재인가?

놈 촘스키(Noam Chomsky)가 강연의 막바지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참석자들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곤 한다. 대답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더욱이 외부의 그 누구도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해줄 수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누군지, 어떤 일까지 감당할 용의가 있는지를 아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요. 정치적 사회운동에 자기 시간을 100퍼센트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결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바깥에서 온 구세주가 바로 ‘이런 일을 할지어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요.”<sup>11)</sup>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바로 우리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권고,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촘스키의 말에 의존하여 본다. 바로 다른 다자간의 협력과 공동의 평화 추구가 필요한 아젠다이지만, 코리안들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주체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틈과 힘의 갈등 속에서 하게 된다.

이런 틈에서 여성주의 리더십을 생각하여 본다.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가 중심이 되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었다. 2008, 2009, 2010, 2012년에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성취에 여성의 노력과 기도가 강렬하게 더해지게 되었다.

2002년 금강산에서 남북 여성들 700명이 함께 모여서 6.15선언을 기억하는 평화대회를 진행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고, 2015년 Women Cross DMZ를 통해 국제사회와 동참하여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염원을 호소하게 된다. 2019년 Korea Peace Now 캠페인은 세계시민기구들이 연합하여 여성의 연대를 통한 평화의 성취 바람을 강하게 불게 하였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을 기획한 “20년을 맞으면서”는 분단의 대결과 갈등을 해소하는 국제적인 아젠다로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다시 맞추어 있다.<sup>12)</sup>

우리는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국제사회의 위급한 문제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다양한 면에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세계의 생태·평화·문화를 구성하는

---

11) Noam Chomsky, *Global Discontents*, Henry Holt and Co, New York, 49.

12) Christin Ahn, “Why Women Must Lead at All Levels of the Peace process,” in *The Light of Peace*, 61-64.



일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때에 와 있다고 본다.

하나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단 현실의 아픔을 우리는 보다 자신의 내면적인 아픔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분단이 주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해악에 대하여 보다 주관적인 자기 동일화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Move toward pain, injury, and harm). 물론 그 아픔과 상처는 모두가 자원하여 겪을 수 있는 쉬운 장이 아니다. 그러나 아픈 현실을 교회가 신학적인 담론 속에서 아프지만 가까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성 속으로 동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 그리고 해악의 자리를 기도와 변형의 자리로 마주하는 교회의 모습과 운동을 통해서 은총의 도구가 된 한반도의 고난과 아픔을 바로 껴안고 부활의 경험으로 치유하게 되지 않을까. 이산가족의 설움, 열강 속에서 경제 제재와 고립의 아픔, 군사문화 중심의 폭력과 파괴적인 현실, 불신과 대적의 흑백 심판주의의 가혹함을 우리는 안다. 분단의 가위눌림이 참된 자유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구의 현실을 희망과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분단과 두려움이 주는 이질감과 거절의 현실을 진리와 화해의 담론으로 바꾸는 그런 공간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 담론을 거절하고 평화의 교회를 복음으로 펴가는 그런 공간과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교회는 다른 시민단체와 NGO들과 연대하여 평화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파트너로 겸손히 위험한 자리로 나가야 한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보고, 모두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일 것이라 믿는다.

지난 70여년의 기간 속에서 교회가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세계교회 속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생명의 담론으로 남아 있다.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평화 담론의 주체가 된 경험을 상기하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이제 기동운동으로 인하여 평화가 그리스도인들의 바닥운동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서로 다른 전 이해가 있어도 평화를 위한 부름이 선명해지게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길 바란다.

이제 그 다음으로 평화를 위한 기도의 제단을 함께 쌓아가고 서로 소통하는 평화 담론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가 포기할 수 없는 백성들의 희망인 것을 믿고 살아 내야 한다. 어둠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희망을 볼 수 없는 어려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평화와 화해가 마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희망과 확신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듯이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화해와 평화의 현실을 믿고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한 가지 강한 희망을 품고 역사를 살아가야 한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평화의 담론을 만들어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맺는말로 주고 싶다. 다자간의 대화와 동의를 얻어야 한반도의 평화가 귀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코리안들이 스스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누가 와서 새로운 해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믿는가.

이미 남남갈등이니 세대 간 이해 갈등이니 하면서 한 가지 뜻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그것은 맞는 말이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역사를 달리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분단 현실에

서 그 해법이 하나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일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계교회가 평화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다양한 면에서 연대운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분된 정치적인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영과 이해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됨과 협력, 그리고 정의를 담보하는 일이 공통의 관심인 것을 중용하게 된다.

그런 복잡한 세계 문제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 풀이의 대상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의 문제는 비핵화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한다.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비전문인이 그 상자를 어떻게 열수 있겠는가 묻게 된다. 물론 그 상자를 잘못 열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더 강하게 역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우리들에게 남북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겠다는 일치의 모습을 보게 하였고,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인 노력과 협력을 하나의 큰 전제로 이야기한 것을 역사적인 의미로 보게 한다. 북미관계의 고리가 풀려서 정상화 외교가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을 가속화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비핵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안전을 가져오기에 신뢰와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신뢰라는 언어는 바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창구가 된다. 신뢰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어떤 위험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기희생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여긴다.

바로 여기 우리 스스로 이념과 차별의 벽을 넘어서 믿음 속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는 점진적인 관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정이 관계의 중심 언어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한반도 평화 운동의 핵심으로 실천해가야 한다.

북미외교가 이루어지고 평화체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고, 한미동맹과 북미수교가 공존하는 날이 오고, 동시에 남북의 협력과 교류가 촉진되어서 우정과 동질성을 회복해 가게 된다면, 모두가 바라는 행복과 평화를 그 판도라 상자에서 꺼내는 일이 될 것이다.

불신을 신뢰로, 외교 고립을 소통으로, 패권 경쟁의 양자택일에서 상생과 공동선의 추구로 바꾸어가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지속해야만 하는 하나님나라 아젠다라고 본다. 군사적 대결로 평화와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 대안이 스스로 제안하고 공존하는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신뢰의 문화와 우정의 담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 참고문헌

시카고 외교구락부(Chicago Council of Foreign Relations)에서 1946년 3월 21일  
한 기조강연.

애틀란타 선언문.

2018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의 주제 기조강연.

북미주 그리스도인들의 선언문, 2020.

Hee Soo Jung. "Reconciling Boldly." Bible Study in EFK meeting, June 23,  
Geneva, Swiss.

*The Light of Peace: Churches in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ninsula.* WCC,  
Geneva, 2020.

Patrick M. Norton. *End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Legal Issues.*  
1997.

Noam Chomsky. *Global Discontents.* Henry Holt and Co, New York, 49.

Christin Ahn. "Why Women Must Lead at All Levels of the Peace process."  
in *The Light of Peace.* 61-64.